

단기, 피해수습 방안 마련 · 중장기, 미래 성장동력 창출

경제 활력 · 일상 회복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전북도의 포스트 코로나19, 8대 정책은 경제 활력화, 그리고 이를 통한 일상성 회복 등 두 가지를 핵심축으로 하고 있다.

특히 향산이 없으면 향심이 없다(無恒産 無恒心)는 맹자의 구절처럼 일상생활로 진정한 복귀(향심을 되찾기)를 위해서는 경제 활력화가 선행(향산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목표로 담아냈다.

아울러 감염과 불평등의 문제에도 주목해 감염병 피해 사각지대 해소와 공공의료체계 구축 노력도 아우르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가운데)와 김양원 도민안전실장(왼쪽) 등 도 실국장은 7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전북도 포스트 코로나19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전북경제 활력화

전북경제 활력화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소비, 생산, 고용 경제의 주요부문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중장기적으로 포스트 코로나의 트렌드를 반영한 성장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민간과 공공 영역 등 각계각층이 모두 들어간 산·학·연 전문가 풀을 중심으로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경제활력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코로나19 위기 관리 대응 및 신속한 경제 회복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비대위는 민간위촉직 중심의 대책위원회와 실무자 중심의 실무위원회 투트랙으로 운영되며, 경제 전반의 상황과 동향을 평가하고 현장 의견 등을 파악해 그간 발표한 대책들의 추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해 경제활력화를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발굴·수립할 계획이다.

생활 방역 전환에 따라 골목상권 활성화와 침체된 관광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소비촉진을 통한 정책 발굴로 서민경제의 안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코로나19 정국에서 부각된 '정적 전북' 이미지를 활용한 차별화된 명품화 전략을 모색해 문화·관광자원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흡소광·온라인 마케팅 입점 수수료 지원 등 유통분야 O2O 플랫폼 지원 확대, 새로운 라이프스타일과 연관된 비대면(untact) 소비 촉진 플랫폼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역동적 경제산업활동을 위해 고용시장 악화 방지를 위한 기업 유지 긴급자금 지원과 글로벌 밸류체인 붕괴에 따른 유턴기업 유치 방안, 비대면 수출마케팅 지원을 통한 시장 다변화 가속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경제활력화 비상대책위
감염병 위기 관리 대응
신속 경제회복 방안 마련
비대면 소비 촉진 플랫폼
활성화 추진키로
유턴기업 유치 위한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

경제

일상

사전예방 측면에서
생활의 과학화 통해
'삶의 방식' 전환 시도
공공의료체계 구축
본격화도 시급한 과제

전북도 포스트 코로나19 '8대 정책'

- 경제활력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운영
- 미래 혁신성장산업 집중 육성
- 착한 소비로 서민경제 안정화
- 생활의 과학화로 일상성 회복
- 역동적 경제산업활동 추진
- 공공의료체계 구축 본격화
- 안정적 고용유지와 일자리 키우기
- 감염병 피해 사각지대 해소

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위기 대응 긴급경영자금지원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과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으로 산업생산의 탈중국 가속화가 전망됨에 따라 유턴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안정적 고용유지와 일자리 키우기를 위해서는 실업자와 일시 휴직자의 생계 안정과 공공 부문 일자리 기회 확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을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미래 혁신성장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정부의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대규모 SOC사업인 새만금 개발에 선제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질병·미세먼지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연구개발(R&D) 분야를 확대하는 한편 5G·DNA(Data, Network, AI)·공공 온라인 강의 플랫폼 개발 등 비대면 산업 육성, 전북의 우수한 농생명 자원을 활용한 그린바

이오 산업 등 미래 혁신성장 산업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일상성 회복

전북도는 일상성 회복을 위해 사전예방 측면에서 생활의 과학화를 통해 지속적인 '삶의 방식' 전환을 시도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이후 예측할 수 없는 위험사회라는 뉴노멀 시대에 개인의 안전과 공동체의 안정을 위해 생활방역 수준보다 강도 높게 삶의 방식을 전환하는 일상적 생활의 과학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감염병의 체계적인 대응과 관리를 위한 공공보건체계의 필수적인 인력양성과 기반시

설조성을 통해 공공의료체계 구축 본격화도 시급한 과제로 삼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로 인한 경제·사회·건강·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의 사회화로 감염병 피해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코로나19 생활방역 전환과 한국판 뉴딜정책 추진에 발맞춰 마련한 도 차원의 종합적 포스트 코로나 대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정부정책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위기를 기회 삼아 현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미래의 가능성을 확장하면서 더불어 잘사는 전북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